

바다야 내가 왔다 스트레스는 비켜~



선유도에서 명사십리상공을 가로지르는 익사이팅 체험 선유스카이브라인. <사진제공=군산시>



고군산군도

군산은 항구도시다. 그 만큼 바다를 활용한 관광자원이 풍부하다는 의미다. 이 중 고군산군도는 지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표 해상관광 자원이다. 고군산군도는 '신선이 놀았다'는 말이 나올 만큼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예부터 크고 작은 섬들과 바다 그 사이의 개성 있는 기암괴석들이 연출하는 경관이 훌륭해 '천혜의 비경'으로 불리고 있다.

CNN은 지난 2022년 48개 국가로 구성된 아시아 대륙 곳곳의 관광명소를 설명하면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숨은 관광 명소 18곳을 발표했는데,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고군산군도가 이름을 올렸다. CNN은 고군산군도에 대해 "도심을 벗어나 휴양을 즐기려는 이들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로,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고 소개했다. 이곳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2023-2024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명소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사계절 어느 때이나 섬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고군산군도다. 특히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힐링과 체험, 즐길거리도 가득해 가족과 연인, 친구 등과 추억 쌓기에도 제격이다.

◇아름다운 백사장 '선유도 해수욕장'

군산시에서 남서쪽으로 약 50km 떨어진 해상에 위치한 고군산군도는 선유도를 포함해 신시도·무녀도·방축도 등 63개 섬이 펼쳐져 있다. 이 중 16개 섬이 유인도로 인구는 약 2000명이다.

특히 선유도와 신시도·무녀도·장자도·대장봉의 경우 '바다가 육지라면'의 노랫말이 현실로 된 섬들이다.

2017년 세만금방조제와 고군산연결도로가 개통되면서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접근성이 좋아졌다.

이런 가운데 고군산군도 대표적인 곳이 선유도 해수욕장이다. 선유도 해수욕장은 파도가 높지 않고 수심이 얇아 물놀이하기에 좋은 해수욕장으로, 육지섬이 되기 전부터 여름철 피서지로 많은 방문객이 찾던 곳이다. 모래입자가 유리알처럼 투명하고 아름다운 백사장이 넓게 펼쳐져 있다고 하여 명사십리 해수욕장이라고도 한다.

선유도 해수욕장의 중심에 자리잡은 명승(국가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뛰어난 자연 경관) 망주봉은 선유도만의 아련한 분위기를 자아내 해수욕을 즐기는 피서객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선사한다. 이곳 해수욕장은 8월 18일까지 운영하며, 개장기간 중 비치 파라솔과 구명조끼, 실내 샤워장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수려한 경관에 짜릿함을 더하다

선유도에서 명사십리 상공을 가로지르는 익사이팅 체험은 빼놓을 수 없는 즐길거리다.

선유도의 대표 익사이팅 체험시설인 선유스카이브라인은 높이 45m로, 선유도 해수욕장 입구에서부터 망주봉 입구에 위치한 조그만 솔섬까지 700m를 케이블에 매달려 하강하는 시설이다.

짙라인을 타고 상공에서 내려다본 명사십리 해변은 하트 모양을 띄고 있어 연인들에게 인기가 많다. 짙라인의 종착지인 솔섬에서 옛시절 선유도에 유배된 선비가 망주봉에 올라 한양 쪽을 바라보며 임금을 그리워하셨다는 설화를 떠올리며 망주봉과 명사십리 해변의 경관을 잠시 감상하는 것도 선유도 해수욕장만의 색다른 매력을 즐기는 방법.

▲부드러운 돌들이 가득 '옥돌해변'

선유도의 옥돌해변은 선유1구 마을에 위치한 작은 해변으로 모래사장이 아닌 부드러운 옥돌과 주변의 기암괴석들이 연출해내는 풍경이 아름다워 점차 입소문을 타고 있는 명소다. 해안절벽에 데크길이 조성되면서 산책하기가 좋으며, 아기자기 작은 섬들과 해변이 연출하는 경관이 아름다워 마을에서는 '신선들레길'이라고도 부른다.

햇빛에 반짝이는 돌들이 가득한 해변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일상에 한가로운 정취를 즐겨보는 것도 색다른 재미이자 힐링이다.

옥돌해변과 해안산책로에서 바라보는 선유도의 노을 또한 아름다워 낮시간 해수욕을 마치고 해질녘 방문하는 것도 추천되고 있다.

▲바다 위 걷고 대장봉 배경 인생 컷도 찍고

선유도와 장자교를 연결하는 장자교스카이워크는 1986년 개통됐던 장자교를 지난해 스카이워크로 새롭게 리모델링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장소이다.

바다 위 투명유리 위에서 대장봉을 배경으로 인증샷을 남기고, 장자도 천년데크를 지나 대장봉에 오르면 고군산군도의 풍경이 한눈에 펼쳐진다.

대장봉 정상에서는 고군산군도의 절경을 360도 모든 방향에서 전망하며 신선이 된 듯한 감상을 즐길 수 있다

는 점에서 숨은 매력으로 꼽히고 있다.

▲해질녘 전국 최고의 노을명소 '선유낙조'

낮시간 시원한 물놀이를 즐긴다면 해질녘 고군산의 노을 감상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고군산군도의 아름다운 절경 8선을 이르는 '선유8경' 중 제1경은 '선유낙조'이다. 또한 망주봉은 낙조의 아름다운 경관 가치를 인정받아 명승으로 지정되었을 만큼 선유도의 노을은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고군산군도 어느 지점에서나 노을 감상이 가능하지만 무엇보다 명사십리 해수욕장과 솔섬데크, 장자교스카이워크, 옥돌해변 명품 데크길 등을

명소로 추천한다.

▲유람선 타고 고군산 바다 누비다

바다와 좀 더 가까이 하고 싶다면 유람선을 타면 된다. 선유도에서 유람선에 오르면 1시간 남짓 선유도-관리도-방축도-명도에 이르는 고군산 해상 유람하며 육지에서와는 또 다른 모습의 고군산 바다를 감상할 수 있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갈매기떼를 만나고, 운이 좋다면 갈매기와 인종샷도 남길 수 있다.

주요 관광 포인트별로 진행되는 선장의 간단한 설명은 유람여행의 재미를 더한다. 육지에서는 보이지 않는 말도-보농도-명도, 광대도-방축도를 연결하는 해상인도교와 인어상(방축도), 독립문바위(방축도), 거북바위(황정도) 등 고군산군도의 명물을 만나는 기회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K-관광섬으로 떠오른 말도 명도 방축도

섬여행의 매력을 오롯이 느끼고 싶다면, 장자도 선착장에서 고군산군도 서쪽으로 향하는 여객선에 몸을 실으면 된다. 관리도 방축도 명도 말도 등 고군산 서쪽 섬들은 장자도에서 불과 15-30분이면 갈 수 있다. 군산항에서는 2시간-2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캠핑족이라면 해안절경을 그대로 담고 있는 관리도 캠핑장에서 백패킹을 즐겨보자.

고군산 섬트레킹 1번지 방축도는 산책로를 따라 무인섬 광대도와 연결된 출렁다리까지 트레킹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출렁다리에서 내려다보는 독립문바위의 경관과 광대도까지 건너가며 즐기는 아찔한 체험은 방축도 여행의 재미난 요소이다.

명도에서는 마을 산책로를 따라 오진여 전망대와 구렁이 전망대로 갈 수 있으며, 구렁이 전망대에서는 말도와 보농도가 한눈에 보인다.

간조 시에는 무인섬 광대도까지 바닷길이 열리는 모습도 볼 수 있다. 고군산군도의 끝섬 말도에서는 1909년 설치되어 10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말도 등대와 바위섬 정상에 한 그루 소나무 천년송, 해안절벽의 습곡구조 등 이색 볼거리가 가득하다.

간조 시에는 무인섬 광대도까지 바닷길이 열리는 모습도 볼 수 있다. 고군산군도의 끝섬 말도에서는 1909년 설치되어 10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말도 등대와 바위섬 정상에 한 그루 소나무 천년송, 해안절벽의 습곡구조 등 이색 볼거리가 가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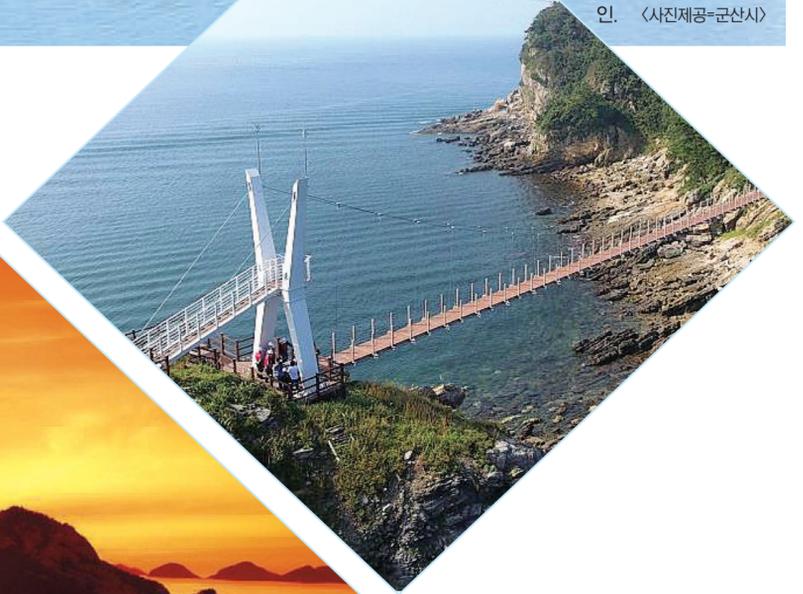
간조 시에는 무인섬 광대도까지 바닷길이 열리는 모습도 볼 수 있다. 고군산군도의 끝섬 말도에서는 1909년 설치되어 10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말도 등대와 바위섬 정상에 한 그루 소나무 천년송, 해안절벽의 습곡구조 등 이색 볼거리가 가득하다.

간조 시에는 무인섬 광대도까지 바닷길이 열리는 모습도 볼 수 있다. 고군산군도의 끝섬 말도에서는 1909년 설치되어 10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말도 등대와 바위섬 정상에 한 그루 소나무 천년송, 해안절벽의 습곡구조 등 이색 볼거리가 가득하다.

간조 시에는 무인섬 광대도까지 바닷길이 열리는 모습도 볼 수 있다. 고군산군도의 끝섬 말도에서는 1909년 설치되어 10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말도 등대와 바위섬 정상에 한 그루 소나무 천년송, 해안절벽의 습곡구조 등 이색 볼거리가 가득하다.

간조 시에는 무인섬 광대도까지 바닷길이 열리는 모습도 볼 수 있다. 고군산군도의 끝섬 말도에서는 1909년 설치되어 10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말도 등대와 바위섬 정상에 한 그루 소나무 천년송, 해안절벽의 습곡구조 등 이색 볼거리가 가득하다.

/전북일보 이환규 기자



- 1
- 2
- 3
- 4

1. 방축도 출렁다리.
2. 해질녘 전국 최고의 노을명소 '선유낙조'.
3. 아름다운 백사장이 자랑인 '선유도 해수욕장'
4. 고군산군도의 끝섬 말도 등대.